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 INEXTING THE QUISSHABLE

불멸

KBS교향악단 제789회 정기연주회

지휘 | 토마스 다우스고르 Thomas Dausggaard  
피아노 | 알렉세이 볼로딘 Alexei Volodin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더클래스호성

2023.04.30. (SUN)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ETIQUETTE

###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

- 1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 2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3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4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5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THE INEXTINGUISHABLE

## PROGRAM

랑고르 | 교향곡 제4번, BVN.124 '낙엽' \*한국초연

🕒 23'

R. Langgaard | *Symphony No.4, BVN.124 'Løvfald' (Leaf-fall)* \*Korean Premiere

- I. 절망적인 숲의 웅얼거림 Despairing forest murmur
- II. 태양의 반짝임 Glimpses of sun
- III. 풍부하고 폭넓게 Allargando espansivo
- IV. 천둥 Thunder
- V. 더욱 느리게 Più lento
- VI. 조금 빠르게 목가풍으로 Allegretto pastorale
- VII. 가을이다! Autumnal!
- VIII. 피로한 Tired
- IX. 절망 Despair
- X. 고요히 Tranquillo
- XI. 계속 편안하게 Comodo sempre
- XII. 일요일 아침의 종소리 Sunday morning bells
- XIII. 끝! Over!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sup>b</sup> 장조, S.124

🕒 21'

F. Liszt | *Piano Concerto No.1 in E<sup>b</sup> Major, S.124*

- 1악장 빠르고 위엄 있게 Allegro maestoso (6')
- 2악장 거의 아다지오로 느리게 Quasi adagio (5')
- 3악장 빠르고 경쾌하게 Allegretto vivace (4')
- 4악장 빠르고 늠름하고 활기차게 Allegro marziale animato (6')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닐센 | 교향곡 제4번, 작품29 '불멸'

🕒 36'

C. Nielsen | *Symphony No.4, Op.29*

- 1악장 빠르게 Allegro (12')
- 2악장 살짝 빠르게 Poco allegretto (5')
- 3악장 조금 느리게, 거의 안단테로 Poco adagio quasi andante (10')
- 4악장 빠르게 Allegro (9')



# THOMAS DAUSGAARD, CONDUCTOR

©Thomas Grøndahl

## 지휘 | 토마스 다우스고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주목받는 덴마크 출신의 지휘자 토마스 다우스고르는 BBC 스코틀랜드 교향악단,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 및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현재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토스카나 오케스트라의 명예지휘자를 맡고 있다.

다우스고르는 20년 넘게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대표 주자로 활동하며 체임버 오케스트라로서는 드물게 교향곡을 선보이는 등 레퍼토리를 확장할 기회를 모색하며 베토벤 전곡 음반을 비롯한 여러 앨범을 발매하였다. 2018년 BBC 프롬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브란덴부르크 프로젝트’는 바흐의 협주곡 사이클을 비롯하여 정상급 작곡가들에게 의뢰한 여섯 곡의 신곡이 담겨 있으며, 2021년 음반으로도 발매되었다.

수석 객원지휘자에서 출발하여 수석지휘자, 명예지휘자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과 덴마크 국내는 물론 해외 투어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EMI, 버진, 산도스, 다카포 등의 레이블에서 수많은 음반을 발매하였고, 특히 자국 작곡가 루에드 랑고르의 교향곡 전곡 사이클 음반 작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시애틀 심포니와 작업한 말러, 닐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의 음반들도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도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예테보리 심포니, 토론토 심포니, 휴스턴 심포니, 베르겐 필하모닉 등과 호흡을 맞춰왔다.

최근에는 뉴욕 필하모닉,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등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또한, BBC 프롬스,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음악제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ALEXEI VOLODIN, PIANO

©Marco Borggreve

## 피아노 | 알렉세이 볼로딘

극도로 섬세한 터치와 똑똑한 기교로 정평이 나 있는 알렉세이 볼로딘은 몬트리올 심포니, 중국 NCPA 오케스트라, BBC 교향악단, NHK 교향악단,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앤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등과 협연하였다. 또한, 빈 콘체르트하우스,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음악당, 마린스키 극장, 필하모니 드 파리,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마드리드 스페인 국립음악당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리사이틀을 펼친 바 있다.

2022/23 시즌에는 싱가포르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브람송 국제 음악제와 바덴바덴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위그모어 홀과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비트와 함께하는 듀오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체임버 뮤지션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볼로딘은 솔 가베타를 비롯해 재닌 안센, 줄리안 라클린, 미샤 마이스키 등 수많은 연주자와 협업을 이어왔다. 볼로딘 콰르텟, 모딜리아니 콰르텟, 카잘스 콰르텟, 크레모나 콰르텟과도 함께 작업한 바 있다.

가장 최근 발매한 음반은 마린스키 레이블에서 게르기예프의 지휘로 함께한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4번이다. 2013년에는 챌린지 클래식스에서 라흐마니노프 독주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슈만, 라벨, 스크랴빈 등이 담긴 독주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특히 2010년 쇼팽 음반은 ‘쇼크 드 클래식사상’을 수상하고 디아파종으로부터 별 다섯 개를 받기도 하였다.

1977년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난 알렉세이 볼로딘은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이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엘리스 비르살라제를 사사하였다. 2001년 레이크 코모 국제 피아노 아카데미에 입학하였고, 2003년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알렉세이 볼로딘은 스타인웨이 전속 아티스트이다.

**랑고르 | 교향곡 제4번, BVN.124 ‘낙엽’ \*한국초연**

R. Langgaard | Symphony No.4, BVN.124 ‘Løvfald’ (Leaf-fall) \*Korean Premiere

<b>작곡연도</b>	1916년
<b>초연</b>	1927년 3월 18일, 덴마크 코펜하겐
<b>편성</b>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3, 팀파니, 하프, 피아노, 현5부
<b>연주시간</b>	약 23분

루에드 랑고르는 덴마크의 근대 작곡가로서 16편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관현악, 실내악, 성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무려 500여 곡의 작품을 남긴 다작가였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생전에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고, 사후인 1960년대 말부터야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은 토마스 다우스고르가 그의 교향곡 전집을 녹음한 이후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인지도가 차츰 확산되고 있다.

코펜하겐의 음악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랑고르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11세 때 오르간 연주자로 데뷔했고, 13세부터는 작곡가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18세 때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했다. 그러나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세례를 받은 그의 작품들은 덴마크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에 그는 국외에서 활로를 찾았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베를린에서 그는 아르투르 니키슈, 막스 피들러와 같은 저명한 지휘자들의 눈에 들었고, 그의 <교향곡 제1번>은 막스 피들러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콘서트에서 초연되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작 덴마크에서는 그의 작품들이 연주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독일에서의 성공을 이어갈 수도 없게 되었다. 이후 그는 나름대로 다방면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했지만, 카를 닐센을 거두로 하는 진보적 경향과 반낭만주의적 예술관에 기울어져 있던 덴마크 음악계는 계속해서 그의 음악을 외면했다. 결국 그는 평생 동안 모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시대와 음악계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절망감과 반항심 속에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아웃사이더’였다.

당대 덴마크 음악계는 그를 낭만주의자, 보수주의자로 낙인찍었지만, 사실 랑고르의 음악어법은 상당히 다채롭다. 비록 닐스 가데, 바그너, 차이콥스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을 출발점으로 삼기는 했지만, 그의 음악에서는 낭만주의와 후기 낭만주의 외에도 상징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고전 형식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실험적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 및 요소들이 발견된다.

<교향곡 제4번>은 랑고르가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변모를 시작하던 무렵을 증언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다시 말해, 이전 교향곡들에서 보여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회고적이며 대조가 결여된, 다분히 낭만적인 음악언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복합적이고 변화가 잦으며 거의 신경과민적인, 보다 개인적인 음악언어로 대체되었다. 아울러 실험적인 면모도 돋보이는데,

일단 소나타 형식을 비롯한 교향곡의 기존 관례로부터 자유로운 단악장 구성을 취했고, 관현악곡에서 보기 드문 ‘E’ 단조\*가 채택되었다. 그런가 하면 오케스트라 편성은 목관악기가 2대씩 배치되고 트롬본과 튜바는 제외된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낙엽’이라는 표제가 붙은 이 교향곡은 단악장 구성이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빠르기-악상 지시로 구분되는 13개의 섹션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구조이다. 또 전체의 제목 외에도 내부의 절반이 넘는 섹션에 세부 표제가 붙어 있기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을 방불케 한다. 명색이 교향곡이지만 뚜렷한 주제선율이나 유기적 발전상은 찾아보기 어렵고, 전편의 구성과 흐름은 다분히 랩소디\*적이다. 짧게는 50초, 길어야 3분 이내인 각각의 섹션은 날씨의 변화 내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바뀌는 가을의 정경과 그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세부 표제를 참고하여 곡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 번호는 섹션의 순서)

곡은 [1]‘절망적인 숲의 웅얼거림’으로 출발하는데, 마치 찬란했던 여름이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며 불평하고 탄식하는 듯하다. [2]‘태양의 반짝임’에 여름날의 추억이 떠올라 견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4]‘천둥’이 치면 마치 여름이 다시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지고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커져 목가적 정경까지 소환하지만, 현실은 어디까지나 [7]‘가을이다!’ 헛된 욕망이 찾아들자 다음 순간 [8]‘피로한’ 상태에 빠져들고, 급기야 [9]‘절망’에 몸부림치다 서글픈 평온 속으로 침잠해간다. 그러나 가을이 깊어갈수록 회한과 욕망도 견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데, 그 격한 흐름이 정점에 이른 순간 [12]‘일요일 아침의 종소리’가 신의 음성처럼 울려 퍼지고, 마침내 가을 풍경의 드라마는 [13]‘끝!’을 맺는다.

\* 랩소디(Rhapsody): 내용과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기악곡. 다른 말로 광시곡(狂詩曲)이라고 한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오늘 공연에 대한 지휘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지휘자 토마스 다우스고르그가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KBS교향악단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sup>b</sup>장조, S.124**F. Liszt | Piano Concerto No.1 in E<sup>b</sup> Major, S.124

<b>작곡연도</b>	1838-1856년
<b>초 연</b>	1855년 2월 17일, 독일 바이마르
<b>편 성</b>	피콜로, 플루트2, 오보에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트라이앵글, 심벌즈, 현5부
<b>연주시간</b>	약 21분

프란츠 리스트는 이 협주곡을 완성하는 데 무려 26년을 소요했다. 이 곡의 주요주제를 기록한 스케치북은 그의 나이 19세 때인 18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후 협주곡 전체의 초안을 잡은 것은 1838년에서 1839년 사이였다. 그러나 본인의 바쁜 연주 스케줄로 인해 완성은 1849년에 가서야 보았고, 이후 1853년과 1856년에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적인 형태를 확정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사이에 리스트의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젊은 시절 리스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에서 이룩했던 악마적 연주기교를 피아노 위에서 펼쳐 보이며 유럽 전역의 청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나아가 고난도의 혁신적인 테크닉을 개발하여 피아노 연주기법의 발전에 기여했고, 작곡에 있어서도 피아노 음악에 주력했다. 그러던 1848년, 그는 돌연 화려했던 순회 연주가 생활을 접고 바이마르 궁정극장의 카펠마이스터(음악감독, 지휘자)로 들어앉았다.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연인 카롤리네 추 자인-비트겐슈타인 공작부인의 권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때부터 그는 피아노 연주보다는 지휘와 작곡 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로 바그너와 함께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견인한 대작곡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바로 이 바이마르 시기에 완성된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리스트의 음악의 가장 중요한 두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즉,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구사했던 화려한 피아니즘을 유감없이 펼쳐 보일 뿐 아니라 '교향시의 창시자'답게 관현악 기법과 악곡 구성에 있어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협주곡은 비교적 짧은 4개 악장이 연달아 이어지게 되어 있어 베버의 <콘체르트슈튀크>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을 연상시킨다. 다만 넷째 악장이 심표로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 두 악장 사이에서는 약간의 단절감이 빚어진다. 아울러 각 악장의 주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반에 확고한 통일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데, 그러면서도 각각의 악장에는 충분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전곡은 위풍당당한 영웅적 제스처와 박진감, 열기와 활력으로 가득한 제1악장(빠르고 위엄 있게), 그윽한 선율의 흐름 위로 다채로운 표정을 지닌 시정이 풍부하게 떠오르는 제2악장(거의 아다지오로 느리게), 활달하고 재기 넘치는 스케르초인 제3악장(빠르고 경쾌하게), 생동감 있고 열정적이며 장쾌하게 펼쳐지는 행진곡풍의 제4악장(빠르고 능률하고 활기차게)의 순으로 진행되며, 전편에 걸쳐 리스트 특유의 현란한 기교와 휘황한 색채감이 두드러진다. 특히 제3악장 초입에는 트라이앵글과 현악기의 피치카토\*의 주도로 신선한 리듬과 음향이 부각되는데, 이러한 수법은 작품의 발표 당시에는 상당히 색다른 시도여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트라이앵글 협주곡’이라는 비아냥은 언젠가부터 이 협주곡의 애칭으로 정착했다.

\* 피치카토(Pizzicato): 현을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하는 주법

## 닐센 | 교향곡 제4번, 작품29 ‘불멸’

C. Nielsen | Symphony No.4, Op.29 ‘The Inextinguishable’

작곡연도	1914-1916년
초 연	1916년 1월 1일, 덴마크 코펜하겐
편 성	플루트3(피콜로 겸함), 오보에3, 클라리넷3, 바순3(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2, 현5부
연주시간	약 36분

근대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카를 닐센은 핀란드의 시벨리우스와 더불어 북유럽을 대표하는 교향곡의 거인이다. 그가 남긴 여섯 편의 교향곡은 시벨리우스의 일곱 곡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 양식을 개척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받는데, 그 중 <교향곡 제4번>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이다. 이 곡의 유명세는 일정 부분 작곡가 자신이 붙인 부제(Det Uudslukkelige)에 빛지고 있다고 해야 할 텐데, 대개 편의상 ‘불멸(不滅)’로 번역되는 이 부제의 영어식 표기는 ‘The Immortal’이 아니라 ‘The Inextinguishable’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멸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멸할 수 없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킬까?

일단 이 교향곡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고, 이 교향곡은 1914년에서 1916년 사이에 작곡되었다. 1914년 7월 대전이 발발하자 북유럽 3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은 즉시 중립을 선언하여 전화는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합국 측의 독일에 대한 해상봉쇄와 독일의 잠수함 작전은 이들 3국의 대외교역과 해상운송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곤란을 겪은 나라가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덴마크였다. 덴마크는 독일의 압박과 위협에 못 이겨 자국 해역에 기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수로가 폐쇄되다시피 하여 생활물자의 결핍과 인플레이, 산업의 정체와 실업 사

태, 궁핍과 사회적 혼란에 시달렸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 교향곡은 ‘전쟁의 참화에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생명력’에 대한 찬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닐센 자신은 그런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인정하는 대신 보다 보편적인 관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멸할 수 없는 것’이란 ‘삶(생명)을 향한 원초적인 의지’를 가리키며, 그것은 인간 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교향곡은 삶의 가장 주요한 원천과 생명감의 수원을 환기하는 음악으로서, 그것을 발현하고 향유하며 온갖 난관과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찬가이자 헌사로 확대하여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닐센은 ‘음악이 (곧) 삶이며, 삶이 그러하듯 음악도 멸할 수 없다’는 관념도 제시했는데, 이 관념이야말로 작품의 근본이념 내지 구성원리를 암시한다고 하겠다.

한편 닐센은 이 작품을 통해 교향곡 창작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먼저 형식적인 면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4악장 구성에서 탈피하여 단악장 구성의 교향곡을 선보였는데, 마치 슈만의 <교향곡 제4번 d단조>나 리스트의 <b단조 소나타>처럼 고전적인 4개 악장의 요소를 순차적으로 배열하되 각 단락(여기서는 편의상 ‘부’로 부르겠다)이 교향적 장치에 의해서 중단 없이 연결되도록 했다. 그리고 제1부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를 피날레의 정점에서 다시 등장시켜 전곡의 유기성을 강화했다. 또한 닐센은 작품의 구조성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교향곡이 고전적 소나타의 일반적인 조성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제1부의 제1주제는 d단조로 제시되는 데 비해 제2주제는 A장조로 제시되고, 제4부는 E장조로 마무리된다. 아울러 닐센은 교회선법까지 응용하면서 특유의 치밀하고 섬세한 조성 제어력을 보여준다.

**제1부**는 처음에 등장하는 격렬하고 역동적인 제1주제와 2대의 클라리넷이 꺼내놓는 온화하고 조화로운 제2주제의 대비 속에서 진행되는데, 다양하게 변주되는 제2주제는 곡의 마지막 정점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핵심 주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발전부에서는 주제를 다양한 요소들로 세심하게 나누고 변형시키는 닐센 특유의 작법이 돋보이며, 절정부에서는 극적 박진감과 긴장감 속에서 제2주제를 금관이 찬가풍으로 크게 부각시킨 다음 조용해지며 제2부로 넘어간다.

**제2부**는 목가적인 간주곡에 해당하는데, 목관의 앙상블과 현의 피치카토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원무곡풍의 경쾌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한가롭게 흐른다. 그 말미에서 홀로 남은 클라리넷을 다리 삼아 **제3부**로 넘어가면, 갑자기 바이올린이 절박한 느낌의 주제를 꺼내놓고 팀파니가 악센트를 더한다. 이 비애적인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플루트에서 짧은 모티프가 연주될 즈음 누그러지지만, 이내 목관에서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는 3연음 악구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후 긴장과 혼란이 점진적으로 고조되어 한 차례 정점에 도달했다가 가라앉는다. 이후 목관의 경고음이 다시 들려오면 갑자기 현이 급속한 움직임으로 질주하며 제4부로 이행한다.

마침내 **제4부**로 진입하면, 일단 한 마디의 온쉼표가 나온 뒤에 활력 넘치는 주제가 등장하여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얼마 후 25분 넘게 침묵하던 두 번째 팀파니 주자가 가세하면서 유명한 팀파니의 대결 장면이 펼쳐진다. (닐센은 이 장면을 위해서 두 조의 팀파니를 무대 뒤 양쪽 끝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 격렬한 장면이 지나가면 마침내 평화를 되찾은 듯 밝고 온화한 목가적 분위기가 한동안 흐르다가, 다시금 팀파니가 작열하고 금관이 포효하면 헌에서부터 푸가토가 시작되며 클라이맥스로 치달는다. 그 정점에서 첫 악장의 제2주제가 돌아와 드높이 울려 퍼지면, 그 벅찬 고양감과 넘치는 울림 속에서 ‘불멸 교향곡’은 장엄한 대단원을 맞이한다.

덴마크 음악사를 빛낸 두 개의 별

국민 작곡가, 칼 닐센(1865-1931)



비운의 음악가, 루에드 랑고르(1893-1952)



| **KBS교향악단** |



## 모바일 앱 출시

언제 어디서나 클래식하게, **내 손 안의 콘서트홀**

국내 교향악단  
최초 온라인  
콘서트홀

지난 60여 년간의  
수백 개 공연  
아카이브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시스템

모든 콘텐츠  
무료 감상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하기



지금 바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디지털 K-Hall**을 경험하세요!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http://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